

서 평

- 린이푸(林毅夫) 외 2인 저. 한동훈·이준엽 역. 2001.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 서울: 백산서당.
- 한더치양(韓德強) 저. 이재훈 역. 2000. 『13억의 충돌: 시장의 신화와 중국의 선택』. 서울: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중국내 상반된 의견

김영진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조교수

I. 서론: 지구화와 중국의 대외 경제발전 전략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다가 오면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두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의 개방은 한편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더 많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잠식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향후 어떤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이미 WTO 가입을 위한 노력 자체가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 전략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지난 1997년 하반기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지구화 시대에 국민경제의 주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체적인 대외개방 전략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이 점에서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국과 경제적 연계 정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외 경제전략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만과 일본 그리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상당 부분 현지 자본이 중국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대국 중국의 자력(磁力)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이 주변국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외 경제전략은 크게 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별된다. 전자는 개방적인 경제가 경제발전의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자국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전문화(특화)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소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덜 발전한 나라들은 개방정책을 통해서 자본·기술·경영능력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해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경제협력이나 시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것은 국가 간 경제관계가 결코 대칭적이거나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은 강자를 이롭게 할 뿐이며, 선진국에 의한 착취와 경제적 나아가 정치적·문화적 종속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상호의존 관계보다는 자급자족을 더 강조한다(Gilpin, 1987: 25-54).

그리고 역사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와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대외개방 정책도 위에서 언급한 상이한 두 가지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전자는 소위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표현되는 자급자족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국제무역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내생산을 위한 보완물로 간주하였다. 자급자족 전략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만 수입하고, 수출도 수입을 위한 최소한의 외화획득에 멈추어야 한다는 수입대체론(輸入代替論)에 입각하였다(이근·한동훈, 2000: 제1장). 이러한 대내지향적인 경제전략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에 대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덩샤오핑 시기의 개방정책은 일종의 비교우위 전략으로서 중국이 가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의 전략이다. 이러한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제5위의 무역국이 되었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개방은 무역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각종 영역의 교류로 이어지면서, 2008년 올림픽 대회의 개최권 획득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면 모순적이지만, 중국에는 경제개방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개방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그리고 그 논의는 지구화(Globalization)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방화 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개방전략을 둘러싼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주변적인 것 같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제까지 추진된 개방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개방의 폭과 속도는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자주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거기에 WTO 가입과 같은 중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 우리 국내에는 경제발전 전략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쟁은 별로 소개된 적이 없다. 다행히 최근 그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첫 번째 글은 북경대학 中國經濟研究中心의 주임교수인 린이푸(林毅夫) 교수

의 2인이 공저한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이다. 이 글은 영어·일본어 등은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적도 있는 『中國的奇蹟: 發展戰略與經濟改革』(上海: 上海三聯書店, 上海人民出版社, 1994)의 증보판이다.¹⁾ 이 책에서는 중국의 국내 경제발전 전략이 주요 관심사이다. 대외 경제전략은 증보판에 새로운 장으로서 추가될 정도로 그 연장선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외경제 발전에 대한 매우 논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국내 경제발전 전략과 마찬가지로 대외 경제발전 전략에서도 비교우위론을 강력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우위론은 이 책에서처럼 체계적으로 표명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여러 경제학자들이 따르고 있고, 실제 이제까지 중국의 개방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한더치양(韓德強) 박사의 『13억의 충돌: 시장의 신화와 중국의 선택』으로서, 원문은 『碰撞: 全球化陷穽與中國現實選擇』(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0)이다. 그는 중국내 정치경제학 연구의 전통이 가장 강한 대학의 하나인 人民大學에서 경제학 학위를 한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이다. 한 박사의 글은 본 서평의 주제인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시장에의 참여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의미에서 비교우위론의 시장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시장현실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즉, 시장에서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따라서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같은 약자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소수파에 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는 세계화의 위협에 대한 중국적 시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위 두 글을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이 서평은 다음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숨고르기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개방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이것은 한때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급하게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였다가 외환위기에 봉착한 한국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각각 비교우위와 보호무역 주장을 비교·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이론적 설명뿐만 아니라, 지난 50여 년 동안 상반된 시도가 이루어져 온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도 제시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아시아 위기에 관하여 위의 두 글에서 제시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두 글을 종합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방법에 있어서 서평에서는 가능한 한,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서평자의 평가는 최소화함으로써 판단은 독자에 맡기고자 한다.

1) 제1판의 한국어 번역본은 『중국의 기적 : 중국의 발전전략과 경제개혁』의 이름으로 증보판 번역자의 한 사람인 한동훈 교수에 의해 1996년 백산서당에서 출간되었다.

II. 비교우위론과 보호무역론

1. 비교우위론

WTO의 가입으로 그 분수령에 이르게 될 중국의 시장개방은 이론적으로 비교우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실시할 경우 소비재 가격이 하락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외자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개혁이 가속화되어 시장경제 체제를 정비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국가간의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린이푸 교수 등 3인(이하에서 린 교수로 약칭)의 저술은 그 제목이 말해주 듯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전략에 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린 교수는 우선 마오쩌둥 시기의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있다(린이푸 외 2인, 2001: 제2장). 개혁전 발전모델은 저자가 추월전략이라고도 부르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시킴으로써 단기간에 선진국을 추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중공업 우선 정책은 당시 농업경제 하에서 설비투자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자본과 외화가 부족한 현실과 모순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거시정책에 있어서 생산요소²⁾에 대한 저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생산요소에 대한 저가정책은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물자부족 현상을 내포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금융·대외무역·물자관리·농산물수매 등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원배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거시정책적 수단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에서 중공업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국유화와 집단농장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렇지만 린 교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전통적 경제체제는 산업구조의 균형 상실과 기술적 효율의 저하 그리고 노동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은 높은 자본집약도로 인해 노동력 자원이 풍부한 현실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였고,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의 이원적 경제구조를 낳았다. 이것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흡수되는 것을 저해하였고, 결국 고용과 도시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높은 자본 축적률로 인해 국민소득 분배는 왜곡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낙후되었다. 동시에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높은 대내지향성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국제무역을 통한 비교우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었다. 결국 린 교수에 따르면, 전통적 계획체제는 자본은 부족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의 경제상황을 비교우위 원리, 즉 시장 기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2) 외환·자본·임금·원료 등.

이용하지 못하였다. 시장 원리를 이용하였다면, 생산자들은 이윤동기에 의해 더 많은 자원을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입하였을 것이고, 자본절약형 기술과 노동집약형 기술의 사용과 개발에 열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효율과 성장은 빨랐을 것이다.

국내적 경제발전 전략은 이 서평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대외 경제발전 전략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린이푸 외 2인, 2001: 제4장).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취했던 경제발전 전략과 대조적으로 일본 그리고 뒤를 이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비교우위 전략을 통해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린 교수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단기간의 주월전략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전략을 취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요소부존도³⁾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부존도가 고도화될 수 있었고, 결국 주도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점차 자본·기술 그리고 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지난 20 여년 동안 중국도 대내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자원배분 체계와 관련하여서 물자·대외무역·금융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거시적 수준에서는 가격·환율·이자율 등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였다(린이푸 외 2인, 2001: 제3장, 제5-6장). 그 결과 동기부여를 통해 경제효율이 개선되었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발전으로 비교우위가 발휘됨으로써 소득수준의 향상과 농민의 비농업부문 진출을 포함한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졌다. 그와 더불어 폐쇄적 경제구조도 개선되어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었다. 경제개방으로 대외 무역이 급속히 확대되어 대외 무역의존도⁴⁾가 1978년 9.9%에서 1997년 36.7%로 상승하였다. 또한 외자유입도 대폭 증가하여 그 기간 동안 총 3,483억 달러의 외자가 실제 이용되었다(린이푸 외 2인, 2001: 234-235).

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주기성, 지대추구 현상과 부패,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체제 개혁의 미진, 국유기업 적자와 자산유실,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소득격차의 확대, 식량생산의 한계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2001: 제7장).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린 교수는 비교우위 전략을 고수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비교우위 전략은 신속한 자본의 축적과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린이푸 외 2인, 2001: 제8장).

3) 요소부존도(要素賦存度)란 한 경제내의 자연자원·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상대적 부존 비율을 의미한다.

4) 중국에서 대외의존도는 정부가 공표하는 GN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첫째, 중국이 갖는 비교우위, 즉 풍부한 노동력에 근거하여 높은 시장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국내의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경쟁력의 약화와 이윤의 저하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는 높은 경쟁력과 수익률 그리고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점차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선진경제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현재 단계에서 중국은 해외자본을 최대한 이용하되 직접투자를 위주로 해야 한다. 직접투자 형식의 자본유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내 자금부족의 열세를 마련하고, 자금과 설비의 도입으로 선진기술의 국내이전을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위험은 외국자본이 지게 되며, 급속한 자금의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동성이 높은 금융인 국내주식과 채권에 대한 개방이나 국내 기업의 단기 외채 차입 등은 제한해야 한다.

린 교수의 주장은 지난 20여 년 이래 중국의 개방정책을 정당화하고, WTO 가입을 포함하여 더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재촉한다는 점에서 중국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실제 중국은 저임금과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이용하여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수입대체 전략에서 노동집약 산업의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주도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고, 여기에 힘입어 국내생산품과 수출품의 생산구조도 점차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개혁기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개방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유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및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은 자원고갈, 식량문제 등을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는 정도도 커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개방 전략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예로서 한더치앙 박사의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호무역론

한더치앙 박사(이하 한 박사)의 주장은 완전한 자유무역이 강대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약소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약소국은 관세, 쿼터제 그리고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이용하여 자국의 기업과 시장을 외국기업과 제품의 침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점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보호무역 이론은 다른 2가지 경제학 이론과 더불어 저자 자신이 내세우는 시장현실주의를 구성한다(한더치앙, 2000: 제4장). 첫째는 경쟁이론이다. 자유주의론에서 시장경

쟁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 박사의 시각에서 볼 때 경쟁은 본질적으로 강자를 더욱 강하게 하고 약자를 더욱 약하게 한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즉, “경쟁은 독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독점은 더 넓은 범위에서 경쟁하기 위해 존재한다. 독점은 경쟁의 수단이자 경쟁의 산물이다. 독점은 부분적으로는 경쟁을 없애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궁극적으로 경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한더치양, 2000: 208). 둘째는 중심-주변이론이다. 중심-주변이론이란 세계시장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중심지역(선진국)과 주변지역(후진국)으로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자간의 거래는 후자의 저발전(underdevelopment)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시장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당면과제로서 WTO의 가입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시장개방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한더치양, 2000: 제2장). 시장개방에 의한 값싼 외국제품들의 진입은 국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 같지만, 사실 소비자는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제품의 진입은 국내 기업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후자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인하와 실업을 야기하게 된다. 외국투자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지만, 그것은 경쟁에서 진 국내기업 노동자들이 잃은 일자리를 상쇄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기업개혁이 가속화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저자가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산업에서 중국의 대외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음료·맥주·세척제·자전거·패션·제지·의약 등 경공업뿐만 아니라 플랜트·자동차·농업 등 국민경제의 주요 분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에서도 대외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금융이 부실화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박사는 시장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이론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한더치양, 2000: 제3장). 여기에서는 시장낙관주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 즉 애덤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리카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 그리고 로스토우(W.W. Rostow)의 ‘경제발전 단계론’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과 비교우위론은 각각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분업에 있어서 강자의 이익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문제를 정태적으로만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힘이 서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분업으로 증진된 부의 대부분은 힘있는 사람에게 귀속되고, 국가의 불균등한 국력은 부를 생산효율이 높은 국가로 집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론 또한 시장낙관주의의 우배하고 기만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인류사회의 발전이 전통사회→이룩이전 단계→

이륙단계→성숙단계→고소득 소비단계→삶의 질적 향상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로스토우의 주장은 앞의 두 이론과 마찬가지로 서구자본주의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시장개방의 대표적인 옹호자인 폴 크루그만(P. Krugman)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크루그만에 의하면, 낙후된 국가는 임금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어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은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한 박사의 시각에서 보면, 크루그만의 주장은 리카르도와 같이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경제관계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경험과 배치되고 있다. 한 박사에게 따르면,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발전은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예로 산업혁명 초기 중상주의에 의한 영국의 발전, 19세기 말 미국·독일·프랑스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용인한 상태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유럽과 일본의 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도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명쾌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 박사에게 따르면, 세계화의 추세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아니다. 그것은 최근 국제 경제체제의 흐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제도적 장치로서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0년대 초반 와해되면서 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평화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다. 오일쇼크 등에 의해 경제발전이 둔화되자 미국, 일본, 유럽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국제 경제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지역블럭화, 비관세장벽 그리고 환율 경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견 WTO⁵⁾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관세인하 등 개방정책과 상반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한 박사에게 따르면, 미국은 GATT와 WTO 협상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북미 자유무역 지대와 환율인하를 통해서 자국의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관 『세계화의 덫』⁶⁾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박사의 글이 주는 메시지는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하다. 그는 경쟁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하며, 국제시장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경쟁은 힘센 자와 약한 자의 불평등한 관계이며, 따라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내

5) 그리고 그 전신으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도 그러하다.

6) 『세계화의 덫(Die Globalisierungsfalle)』은 독일의 시사 주간지 *Spiegel*의 두 기자인 한스 피터 마르틴(Hans-Peter Martin)과 하랄드 슈만(Harald Schumann)이 쓴 것으로 세계화가 금융자본의 독재와 극단적인 삶의 불균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한 박사도 인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강수돌 교수에 의해 1997년에 번역되었다.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점차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박사가 제시하는 발전전략, 즉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적 발전전략은 고용창출, 자본절약, 전략산업의 부양, 과학기술 및 교육산업의 발전으로 요약된다(한더치양, 2000: 제5장). 이러한 주장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린 교수의 비교우위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III.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두 저작의 상반된 평가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되는 동아시아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서도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린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비교적 체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린이푸 외 2인, 2001: 제4장).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었고, 이것은 다시 거품경제의 붕괴와 산업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동아시아 경제의 거품상황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인 토지의 높은 희소성과 낮은 공급탄력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과도하게 팽창하였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투입됨으로써 생산성은 낮아지고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거품상태에 있던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와 함께 주식과 부동산 투기자금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은행부실로 이어졌다. 더욱이 대규모 외채가 직접 투기성 산업에 투입되거나 은행을 통해서 투기성 산업으로 투입되었는데, 거품이 빠지면서 예금인출 사태와 외국자본의 철수가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외환을 외환시장에 방출해야 했다. 결국 보유외화가 모두 소진되었고, 환율은 급속히 하락하여 외환위기와 지불불능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린 교수가 제기하는 금융 부실화의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비교우위를 이용하지 않고, 중공업 정책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인위적으로 육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이자율 정책과 강제적인 은행대출이 이루어지고,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적자생산은 계속되었고, 이것은 다시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와 외채지불 불능으로 이어졌다. 린 교수는 비교우위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창출 능력이 있다면,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국내 은행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가 여기

에 해당된다. 결국 린 교수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우위 전략과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정반대의 논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한국과 대만의 비교에서 가장 간결하게 뒷받침된다.

우선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과 대만은 모두 비교우위 전략 즉,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나라는 상이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을 육성하였다. 한때 한국의 4대 재벌⁷⁾은 전체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산업을 육성하였다. 결국 한국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경쟁할 수 없는 상품에 주력하였지만 적자수출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대만은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부속품의 생산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대만 산업은 자체의 자금능력이 풍부하고 외채규모는 높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금융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위기와 관련하여 한 박사는 체계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시장개방에 대한 그의 비판적 견해로 보아서 충분한 유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시장개방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즉, 힘의 열세 속에서 성급하게 보호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강대국에 잡아먹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대표적인 경우로 들고 있다. 원래 한국은 냉전시대에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말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전략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무역 장벽의 대대적인 철폐를 강요받았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동아시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주권을 넘겨주어야 했다(한더치양, 2000: 215-216).

IV. 결 론

경제 개방과 국제적 분업에의 참여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국제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소개한 두 저술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의 성공과 남미의 실패, 사회주의 체제 이전에 있어서 중국의 성공과 러시아의 실패 등 공시적 비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남미의 발흥과 위기 등 통시적 비

7) 현대, 삼성, 대우, LG 등.

교에서도 경제발전 전략은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의 문제임이 드러난다.

중국은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전략을 구사해 왔고, 이제 WTO 가입이라는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개방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제개방에 따른 부정적 현상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개방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논점은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된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두 권의 저서는 그에 관한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권의 저서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와 현실주의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장 낙관주의는 시장이 갖고 있는 역동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측면들, 이를테면 실업, 환경, 자원, 부의 불균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장 현실주의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경각심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각심은 일정한 목적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시장 현실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경쟁과 그에 따른 불평등 관계에 주목하지만, 보편적인 이익의 측면이 아닌 국가적 이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심-주변이론 등 좌파이론을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계경제 체제의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측면보다는 자국의 불이익이 강조된다. 또 다른 일례로 자원고갈의 문제도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로서가 아니라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박사의 이론은 외관상 현실주의(중상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의 논조가 더 강하게 관철되고 있다.

결국 린 교수와 한 박사 모두 중국의 경제발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만 그 방법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발전 지상주의가 중국인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 중국 내부에서 좀더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그것이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을 정도가 되는 데에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8) 중국의 개방전략에 대한 대외적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의 공식적인 WTO 가입이 있기 전에 회원국들은 중국에만 적용하는 특별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체도를 신설하여 12년간 운영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도 가입 후 15년 동안 발동조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중국의 가입 후 10년 동안 '중국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중국의 WTO 규정 준수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개방전략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견제를 의미한다 ("對中 '긴급 수입제한조치', WTO서 허용키로", 『중앙일보』, 2001.08.20: 1).

◆ 참고 문헌 ◆

- 나카가네 카츠지 저, 이일영·양문수 역, 2001.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신서.
- 마크블레처 저, 전병곤·정환우 역, 2001. 『반조류의 중국: 현대 중국, 그 저항
과 모색의 역사』. 서울: 돌베개.
- 이근·한동훈, 2000. 『중국의 기업과 경제』. 서울: 21세기북스.
- 한스 피터 마르틴 외, 1997.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 카디널.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54.
- Lardy, Nicolas. 1994. *China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Lin, Justin Yifu, Fang Cai, and Zhou Li. 1998. "Competition, Policy Burdens, and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8,
No. 2 (May 1998). pp. 422-427.
- “對中 ‘긴급 수입제한조치’, WTO서 허용키로.” 『중앙일보』. 2001.08.20. pp. 1.

김영진,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 조교수.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61-1
Tel: (02)910-4479 (O). E-mail: kimyj@kookmin.ac.kr